

산으로 가는 전남 '전복섬 사업'

'중국 수출기지' 진도에 115억 투입 공사 '하세월' 발주처-하도급 업체 '부실공사 원인' 놓고 갈등 정산과정 납품 수량 차이 지적에 道 "문제없다" 공사 지연에 주변 어민조합·공사업체 마찰 지속

전남도가 대중국 전복 수출기지로 하겠다며 115억원 남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진도 전복섬 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관급자재 공급업체가 부도로 자재 납품을 포기한데다 발주처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말 일부 시설물의 파손 원인을 두고 시공업체, 하도급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일각에서는 납품 포기 후 타절(공사사행능력 없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 정산과정에서 납품 받았다고 기록된 자재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복섬 공사현장에서 강한 조류로 발생한 로프 꼬임 현상에 의해 시설물 일부가 파손된 것과 관련 시공업체, 하도급업체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공사를 중지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측은 업체의 공

사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업체, 하도급업체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며, 관급자재가 제 시간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52억4000여만원의 관급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올 초 타절 정산을 마쳤다. 이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재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지역업체 관계자는 "수차례 가두리상부시설을 납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로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설계서에 없는 친승줄을 연결한 것"이라며 "이후 영여조합법인에서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절 정산과정에서 부도난

관급자재업체로부터 받은 자재가 정산금액에 비해 2억여원 이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15년 말쯤 예산이 불용처분되며 급하게 시공사와 사급자재로 전환해 계약했다"며 "이후 구두로 수량이 부족하다고 누차 얘기하고 부족한 수량을 공문으로 알려면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관급자재업체의 부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타절 정산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참여해 함께 확인한 사항으로 부족한 수량이 있을 수 없다"며 "공사가 시방서대로 안 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 52억4000여만원, 공사 63억여원 등 모두 115억여원이 투입해 전복가두리 5244칸, 해조류양식장 3471줄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준공시한이 올해 5월 말에서 올 하반기로 계속 지체되는데다 주변 어민으로 구성된 영여조합법인, 공사업체와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내년 강진서 만나요

2019년까지 개최...6개 시·군 유치경합서 최고점

전남의 대표 축제이자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강진군에서 개최된다.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7일 "지난 1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차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시·군 선정을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 최고점을 받은 강진군을 1순위 후보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6개 시·군이 차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유치를 신청, 2017년부터 3년간 개최 시·군 선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

전남도는 관광, 문화예술, 음식, 축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단을 구성, 개최 예정지의 규모·시설, 콘텐츠의 독창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평가 현장에서는 개최를 신

청한 6개 시·군의 축제 담당과장들이 축제장 인프라 확충 계획과 지역 음식문화의 역사성 및 차별화된 콘셉트를 제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고, 그 결과 강진군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강진군은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을 보유한 점과 음식 스토리텔링을 통한 프로그램 차별화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8월께 이사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최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담양군 죽녹원 일원에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추경,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에 중점 투입

유일호 부총리 대불산단 방문 "내달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는 한편, 기타 재정지원을 10조원 이상 늘려 조선업 밀집지역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영암·울산·거제·진해 4개 지역에는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달 초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영암군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광선과 합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한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요트산업으로 전환하고, 대불산단을 품격 중심의 에너지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전봉환기자 jbh@연합뉴스

쿠데타...테러...혼란의 지구촌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가 6시간 여만에 실패로 막을 내리자 17일 이스탄불의 탁심광장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터키 쿠데타 6시간만에 진압...265명 사망·1400여명 부상

한때 이스탄불 공항 등 장악...한국인 140여명 무사 귀환

터키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밤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265명이 숨지고 1400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등 2839명이 체포됐다. 쿠데타 세력은 이날 한때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다.

그러나 휴가 중이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시간 만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통해 복귀해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선언,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빠르게 진압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

전 대통령령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쿠데타 시도를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총성 소란한 군인과 경찰이 쿠데타 시도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터키 고위 관리도 친정부 세력이 군사 본부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탱크와 헬기를 동원한 군부 쿠데타로 한때 군사본부에 억류됐던 터키군 참모총장 등 인사들도 구출됐다.

경찰과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군을 앞세운 정부에 맞선 쿠데타군은 16일 날이 밝자 투항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시

작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점거한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대교에서는 군인 50여 명이 무기와 탱크를 버리고 손을 들고 다리를 걸어 나왔다. 200여 명의 비무장 군인은 군사본부에서 나와 경찰에 투항했다.

둔다르 터키 참모총장 대행은 터키군은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재미 터키 종교 지도자인 팻홀라흐 쾰렌의 지지세력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망명 중인 쾰렌은 앞서 성명을 통해 쿠데타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佛 니스 해변 '트럭 테러' 참사...100여명 사상

사살된 튀니지 출신 용의자 30분간 2km 광란의 질주 한국인 피해 없어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의 날)이자 공휴일인 지난 14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 니스에서 대형 트럭이 축제를 즐기는 군중을 덮쳐 최소 8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18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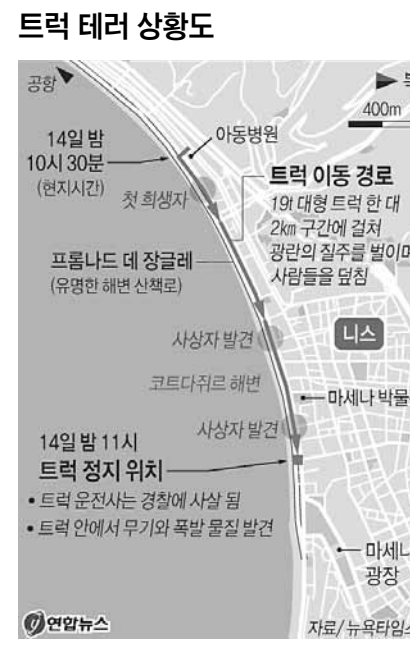
이날 테러는 작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극장과 식당, 경기장 주변에 이슬람국가(IS) 추종 세력이 테러를 벌여 130명이 숨진 후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 출신 모하메드 라후에우 부넬(31)은 이날 밤 10시 30분께 수천 명이 모인 니스의 유명한 해변 산책로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19t 짜리 대형 화물 트레일러를 몰고 2km 구간을 약 30분간 질주하며 사람들을 덮쳤다. 인명 살상을 의도한 듯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트럭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트럭 안에서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발견된 무기 중에 권총, 장총 한 자루씩과 가짜 수류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부넬은 경찰과 총격전을 하다 사살됐다.

한편, 정부는 15일 한국인 연락두절자 62명에 대한 안전을 전원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집바와 열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화순군 남면 사평리 대지218평 전망좋은 건축가능 부가치 ▶ 감평가 2천6백만원 최저가 2천6백만원
- 남구 월산동 3층원룸 건물133평 토지74평 코너위치 18가구 위치좋은 ▶ 감평가 4억6천 최저가 3억7천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평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평가에56%)
- 북구 흥중동 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222평 위치.건물상대 최상 ▶ 감평가 12억원 최저가 12억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미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평가 1억2천만원 최저가 5천3백만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상호 서산초등학교인접 ▶ 감평가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전남 보성군 인로잇은 편백및 삼나무식재된 투자가치우수 ▶ 감평가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평가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